



주 제:	“사랑도 하나.”	“삼위일체 대축일” (다해)	2007년 6월 3일
복음 묵상:	[요한 16,12-15]	[잠언 8,22-31]	[로마 5,1-5]

하느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은 결국 인간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신비입니다. 성부께서는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여 외아들을 자기까지 하셨으니, 인자를 믿는 이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요한 3,16)하여 주셨습니다. 성자께서는 인간을 향한 극진한 사랑으로 당신의 생명까지 바치시면서,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같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십니다. 따라서 삼위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시고, 세 가지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도 하나입니다.

따라서 삼위일체의 신비는 이렇게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동 김도겸 신부님강론중에서)

1. 성가대 소식

추입단: 석은경 아가다 자매님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어 성가대에 입단하셨습니다.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환영 합니다.

- 30주년 음악제 준비를 위한 연습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않은 연습기간중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족 동정

- 지휘자님의 여행기간중에 아침연습과 미사는 김진희 유스티나 자매님이 수고해 주시고, 오후 연습은 최효원 도미니카 자매님이 미사곡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6/1 유비오 지휘자님과 요안나 자매님 쌍둥이 손녀들의 백일을 맞아 2주 여정으로 동부에 가십니다. 기쁜 만남으로 좋은 여행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3. 기도 요청

- 북가주 여성 제 7차 꾸르실료에 성가대 가족중에 김재훈 세실리아, 강인경 세실리아 자매님이 5/31-6/3(일)까지 교육에 들어가십니다. 주님의 사랑안에 흠뻑 젖어 나오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로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음 [요한 16,12-15]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알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대로 일러 주실 것이며 앞으로 다가 올 일들도 알려 주실 것이다. 또 그분은 나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여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다 나의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시리라고 내가 말했던

것이다."



가톨릭 용어사전

예수성심 성월을 맞는 신앙인의 자세



예수성심 성월은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신 나머지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성심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에 합당한 응답의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며 보속과 희생의 생활을 실천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므로써 첫째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특히 오늘날처럼 생명경시 풍조와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는 현실에서 예수성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기에 우리의 보속과 희생의 실천은 더욱 절실하게 요청된다. 6월 예수성심 성월을 맞아 나의 삶 안에서 예수성심께 다시금 가시관을 씌우고 있는 점은 없는지 반성하고, 동시에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예수성심을 위로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지를 묵상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이 세상은 예수성심의 뜻대로 사랑이 흘러 넘치는 하느님 나라가 될 것이다.

삼위일체 대축일

<p>삼위일체이신 하님을 고백하는 삼위일체 대축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합니다.</p> <p>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인식으로 받아 들여야 하며 <믿을 교리></p> <p>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차원에 존재하시는 분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십니다.</p> <p>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14~16 장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고 계십니다.</p> <p>위대하고 놀라운 권능을 가진 세위격의 하느님께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 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고</p> <p>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계시는 것은 철저한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p> <p>이러한 삼위일체의 하느님을 받아 들이는 것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p>	<p>삼위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자 고유한 위격을 가지고 계시듯이.</p> <p>우리 모두도 각자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는 개별적 존재들 임에도.</p> <p>성체안에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p> <p>서로 하나로서 받아 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은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p> <p>그러나 서로 다른 상대방을 받아들이기 위한 희생과 아픔이 있어야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승리 할 수 있겠습니다.</p> <p>삼위일체는 맨 마즈막에 우리가 가서 안겨야 할 안식처라고 볼때 이 세상에서의 아픔. 상처를 잘 승화시키고</p> <p>그러한 아픔의 시간들에 대하여 감사할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p> <p>믿음의 삼위일체 대축일을 축하드리며 보나수녀</p>
--	--